

글로벌 제약산업 전시회 CPHI 2026

2026년 하반기 제약·바이오의 4대 테마



Contents

- I. CPHI Milan 2026 개요
- II. CPHI Milan 2026 Themes & Trends
- III. 주요 기업 참가 동향
- IV. 부록



Contents

I. CPHI Milan 2026 개요

- CPHI 2026 행사 개요
- CPHI 2026 행사 구성
- CPHI 2026 전시장 정보



CPHI Milan 2026 행사 개요

CPHI(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는 원료의약품부터 위탁개발생산, 완제의약품, 제조 설비 및 패키징까지, 제약·바이오 산업 전 밸류체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B2B 전시회입니다. 오는 10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며, 국내 기업에게 CDMO 수주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바이오시밀러 및 원료의약품 수출 판로 확보 등 사업 기회 발굴과 매출 창출의 장입니다.

CPHI Milan 2026	
역사 및 개요	199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되어 유럽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B2B 전시회 - 영국 전시·컨퍼런스 주최 기업인 인포마마켓(Informa Markets) 주관
일정 및 개최지	2026년 10월 6일(화)~8일(목) 3일간 개최 -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 전시관에서 전시, 기조 연설 및 컨퍼런스 프로그램 운영
주요 전시분야	원료의약품(API), 완제의약품, 제형, 위탁생산, CRO, 패키징 및 투여 시스템, 제조 및 공정 설비, SI 및 첨단기술, 콜드체인 및 물류, 라벨링, 오염관리, 부형제 등
참가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론자, 카탈란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 2,900+개사 참가(25' 기준)
참가국	2025년 기준 170개국(5.9만명)
입장료	Standard: €329 (전시 관람 + 콘텐츠 세션 + 디지털 명함 교환) Explorer: €499 (상기 혜택 + Match & Meet zone 입장 +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 Leader: €799 (상기 혜택 + 리더십 서밋 + 리더 라운지 + 우선 입장 + 공식 굿즈) Networking Leader: €3,999 (상기 혜택 + 지속가능성 서밋 + 커넥션 프로그램 + 프라이빗 네트워킹 라운지 + 애프터아워 프라이빗 네트워킹 행사 + 컨시어지 서비스 등)
등록 및 배지	- 사전 온라인 등록을 통해 이메일로 배지 및 QR 코드 수신 - 원활한 입장을 위해 방문 전 배지 출력 권장(현장에서 키오스크 출력 가능)
공항 정보	밀라노 말펜사 공항(Milano Malpensa Airport)/ 리나테 공항(Milan Linate Airport)
주차 정보	전시장 주변 7개의 유료 공용 주차장을 운영하며, 첫 4시간 €14.5 ~ 하루 약 €20 수준 (약 10,000대 주차 가능하며, APCOA 웹사이트 사전 예약 권장)
교통 옵션	Explorer 이상의 pass 소지 참가자에 무료 교통 패스 제공(메트로, 트램, 버스 이용)

Key numbers at a glance(2025)		
 참가자 수 5.9 만+	 참가국 수 170	 참가기업 수 2,900+
 비즈니스 미팅 건수 17,500+	 비즈니스 컨택 210,000+	 C-suite 및 의사결정자 40%
 컨퍼런스 세션 150+	 연사 수 260	 스타트업 전시 기업 117 (36개 국가)

출처: CPHI 2026 (<https://www.cphi.com/europe/>)

[참고] 세계 3대 기술 전시회

CPHI는 주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행사 중 하나로, JPMHC가 '투자 유치(Investment)', BIO USA가 '사업개발·기술이전(BD & Licensing)'에 강점을 가진다면, CPHI는 의약품 원료·제조·공급 파트너십 구축(Partner)'의 현장입니다.

	CPHI Europe (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JPMHC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BIO USA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시작 연도	1990년	1983년	1993년
개최 시기	매년 10월 ~ 11월	매년 1월	매년 6월
개최 장소	유럽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바르셀로나 등)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 (보스턴,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 등)
규모	• 전시 규모: 약 200,000㎡ (2025년) • 방문객 수: 약 59,000명 (2025년) • 참여 업체: 약 2,900개사 (2025년) • 임원급 비중: 17% (2025년)	• 행사장: The Westin St. Francis Hotel • 방문객 수: 약 8,000명 (2026년) • 참여 업체: 약 500개사 (2026년) • 임원급 비중: 비공개(초청제 특성상 절반 이상으로 추정)	• 전시 규모: 1,650개 전시 부스 + 65개 파빌리온 (2025년) • 방문객 수: 약 20,000명 (2025년) • 참여 업체: 약 1,500개사 (2025년) • 임원급 비중: 58% (2025년)
주요 특징	• 글로벌 제약 B2B 전시회 • 원료의약품부터 CDMO, 완제의약품, 설비·포장까지 제약 공급망 전반을 한자리에서 파악 가능 • 실제 구매 및 계약 결정권을 가진 글로벌 임원·실무책임자가 대거 참가해 수주 진행	• 글로벌 제약·바이오 투자 심포지엄으로, 전략 발표와 자금 조달, 투자 유치를 위한 B2B/IR 투자 행사 • 메인 행사장은 JP모건의 사전 초청을 받은 기업 및 기관 투자자만 입장 • 연초에 개최되어 글로벌 빅파마들의 한 해 연구개발 방향성, 파이프라인 전략, 대형 M&A 및 기술이전 계약 집중 발표	• 글로벌 종합 제약·바이오 컨벤션 • 전시회, 학술 세션, 전용 플랫폼을 통한 1:1 파트너링(기술이전 및 공동 R&D)이 결합된 행사 • 각국 국가관(Pavilion)이 중심이 되어 자국 바이오 생태계 홍보

출처: 언론 매체 및 행사 홈페이지 종합, 딜로이트 인사이트

CPHI Milan 2026 행사 구성

구성	핵심 내용 및 비즈니스 가치	10.6(화)	10.7(수)	10.8(목)
		Day 1	Day 2	Day 3
전시	- API·제네릭·CDMO·포장·설비 등 제약·바이오 공급망 전 분야 원료·기술 및 서비스 공개 - 글로벌 제약사·원료 제조사·CDMO 기업·설비 업체가 역량 제시 및 홍보 ➡ 글로벌 제약 공급망의 안정성·규제 준수·생산 역량을 검증하고 수주 계약을 도출하는 현장 플랫폼	✓	✓	✓
NEW 신규 특화 전시존	- 기존 전시 구획에 최신 업계 트렌드와 관심사를 반영한 4개 전용 구역 신설 ① AI & Tech ② Contamination control ③ Cold chain & logistics ④ Labelling 등	✓	✓	✓
비즈니스 미팅	- 전시 부스 미팅·1:1 미팅룸·프라이빗 라운지·VIP 파트너링 공간 중심의 B2B 협상 ➡ 원료 공급 계약·CDMO 위탁생산 수주·기술 이전(L/O) 및 글로벌 공급망 제휴 등이 체결되는 거래의 장	✓	✓	✓
네트워킹 및 이벤트	- 각국 Pavilion·주최 측의 리셉션, 드링크, 네트워킹 라운지, 우수 기업 시상 등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 및 이벤트 운영 - ex) Day 0 exclusive reception for leaders, CPHI Pharma Awards & Celebration, Networking Playgrounds, Happy Hours, Country Pavilion Networking Drinks, start-up breakfast 등 ➡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 참가자 간 비공식 네트워크 구축 및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의 장	✓	✓	✓
컨퍼런스	- 트랙 기반 세션 운영 - Manufacturing 5.0, next-gen bio, AI & tech, device & packaging, supply & formulation excellence, sustainability, contamination control 등 ➡ 글로벌 제약 규제·공급망·기술 등의 중장기적 구조 변화와 시장 트렌드를 조망하는 인사이트 세션	✓	✓	✓
기조연설	- JP 모건 디렉터·FDA/GMP 규제 전문 CEO·유럽바이오협회장·바이오 VC 대표 등 투자·금융·규제·정책 분야 리더 참여 - 지정학적 공급망, 규제, AI 기술, 정책, 투자에 이르기까지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결정짓는 4대 핵심 축의 전략 제시 ➡ 글로벌 제약 시장의 공급망 안정성·규제 변화·기술 혁신 방향성을 공유하는 실행 중심의 무대	✓	✓	
Leadership Summit	- Leader 및 Networking Leader 패스 소지자 참여 가능하며, 주로 업계 리더가 참여하는 프라이빗 서밋 ➡ 산업 전환기 대응·신성장 동력 및 혁신 기회 발굴·차세대 의약품의 글로벌 상업화 실현 가능성 논의하는 자리	✓		
NEW Sustainability Summit	- Networking Leader 패스 소지자 참여 가능하며, ESG 담당 임원·친환경 포장 및 공급망 전문가·규제 전문가 참여 - 토론 및 협력 중심 이벤트로, 20개 이상의 실천형 라운드테이블·워크숍·솔루션 랩 운영을 통한 가치사슬 전반의 친환경 전환 모색 ➡ 글로벌 제약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가속화하고 상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협력 이니셔티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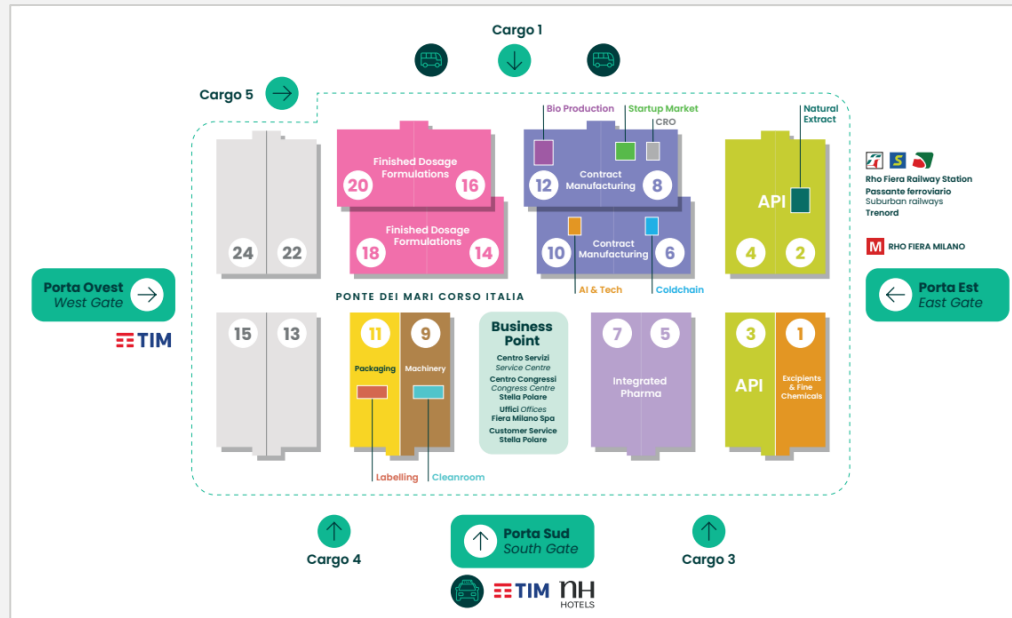
CPHI Milan 2026 전시장 정보

올해 CPHI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에서 열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한국관이 매년 부스 전시 및 현장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 전시장

(총 전시 면적: 12.5만평 = 코엑스 8.4배, 축구장 57개 규모)



- 이탈리아 밀라노 로(Rho) 지역에 위치, 밀라노 말펜사 공항(MXP)에서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약 40km) 지하철 M1 노선(Rho-Fieramilano역) 직결
- 이탈리아의 세계적 건축가 Massimiliano Fuksas가 설계한 공간으로, 20개 전시홀이 거대한 유리 지붕 보행로(Vela)로 연결된 유럽의 대표적인 국제 전시장

출처: CPHI 2026 (<https://www.cphi.com/media/e57c1ebe/CPWWMilan-2026-floorplan-f11b170007a2dbe8579f779f5ebb73f4.pdf>)

전시장 현장 스케치



출처: 언론 및 소셜 매체, CPHI 웹사이트 종합

Contents

II. CPHI Milan 2026 Themes &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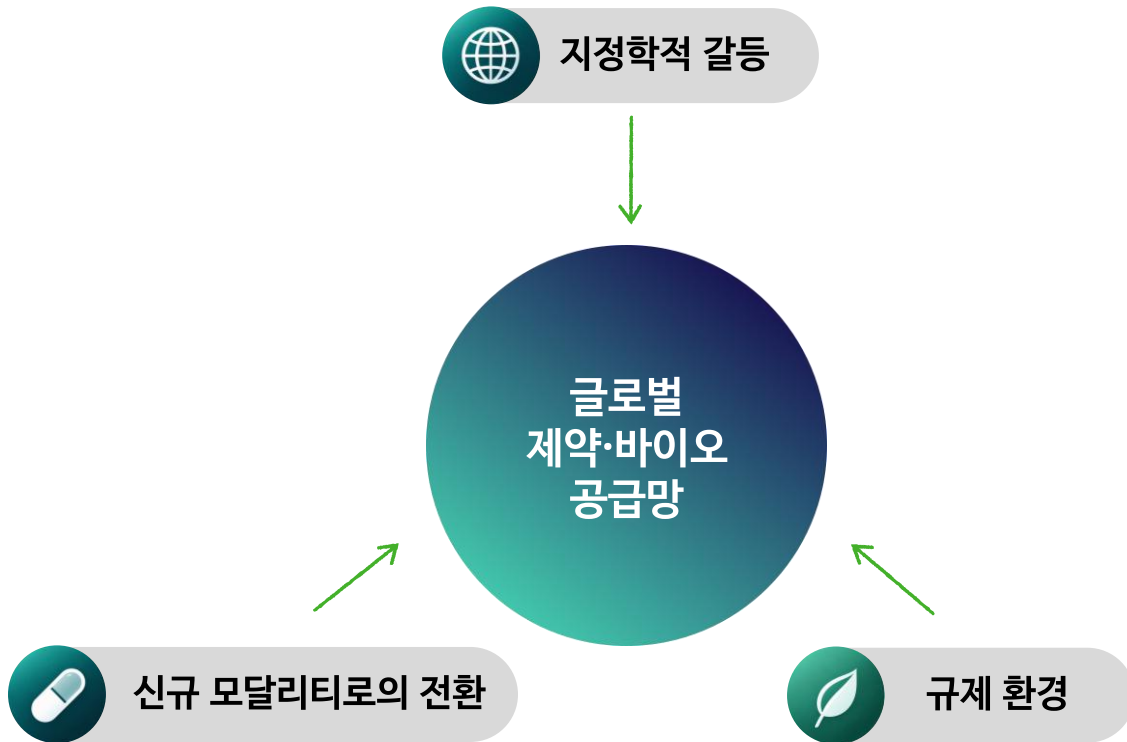
- Macro Context: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3대 거시적 동인
- 관전 포인트: CPHI를 관통하는 4가지 주요 트렌드
- CPHI Milan 2026 기조연설에서 읽는 트렌드



Macro Context: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3대 거시적 동인

▲지정학적 리스크 ▲모달리티 세대 교체 ▲ESG·약가 인하 등의 규제 변화 등 3가지 주요 동인으로 인해, 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CPHI 2026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관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대 동인



① 지정학적 갈등: 미·중 안보 패권 경쟁과 공급망 탈중국(De-risking)

- **바이오 안보 규제 강화:** 미국 정부는 의약품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분야로 보고 중국 주요 CDMO 및 원료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통과 및 발효
- **탈중국 공급망 재편 본격화:** 글로벌 빅파마 사이에서 기존 중국 중심의 위탁생산 및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는 실질적 **탈중국** 기조 확산

② 신규 모달리티로의 전환: 차세대치료제 중심의 파이프라인 재편

- **시장 패러다임 전환:** 기존 항체·의약품 중심의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치료 효율성과 표적성이 높은 **차세대 치료제**(ADC, CGT 등)로의 파이프라인 중심축 이동
- **차세대 치료제 상업화 가속 및 공정 난이도 상향:** 암세포 표적 '유도미사일 기술'인 **ADC**(항체-약물 접합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GLP-1**(비만/당뇨), **mRNA** 기반 치료제 등 공정이 복잡한 치료제 시장 급성장

③ 규제 환경: 약가 인하 압박 및 ESG 준수 의무화

- **글로벌 규제 정책 강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바이오·의약품 **약가 인하** 압박과 EU 중심의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CSDDD) 단계적 시행
- **원가 절감 및 친환경 경영 요구:**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제조 원가 절감** 필요성 증대 및 탄소 배출·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 체계 전환** 필요

💡 CPHI 2026 시사점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CPHI 2026**에서는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공급처 다변화 ② 차세대치료제 제조·위탁생산·패키징 혁신 ③ AI와 디지털 전환 ④ 지속가능성 등의 트렌드가 기업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

관전 포인트: CPHI를 관통하는 4가지 주요 트렌드 (1/3)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산업 안팎의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PHI 2026 현장에서 밸류체인 내 유망 파트너사 및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망, 제조, AI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등 4가지 트렌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대 거시적 동인

Macro ① 지정학적 갈등

- 미·중 안보 패권 경쟁 및 생물보안법 발효
- 글로벌 빅파마의 공급망 탈중국 기조

Macro ② 신규 모달리티로의 전환

- 차세대 치료제 중심 파이프라인 재편
- 공정 난이도 상향

Macro ③ 규제 환경

- 글로벌 규제 정책 강화 (미국 IRA, 유럽 CSDDD 등)
- 원가 절감 및 친환경 경영 요구

CPHI를 관통하는 4가지 주요 트렌드

트렌드 1.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공급처 다변화

- 탈중국 수주 이전 가속: 생물보안법 등 탈중국 여파로 cGMP 역량을 입증한 한국·유럽·인도 거점을 검토하는 움직임 확대
- 기술이전 리스크 최소화: FDA·EMA 등 주요 규제기관 대응 경험이 풍부한 대체 공급업체에 대한 선호 확대
- 멀티소싱 전략 강화: 복수 제조거점·대체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핵심 원료의 규제 등록 및 공급 안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전략 확대

트렌드 2. 차세대치료제 제조·위탁생산·패키징 혁신

- 신규 모달리티 CDMO 전문화: 고난도 공정 대응을 위한 전문 설비와 공정개발·제조 역량을 갖춘 CDMO 경쟁 심화
- 제형 및 자가투여 디바이스 직결: 제형 고도화와 GLP-1용 오토인젝터 디바이스·완제 충전(Fill-Finish) 솔루션 일체화
- 고위험 모달리티 전용 초저온 콜드체인 및 무균멸균 패키징: CGT·mRNA 등 신약의 극저온 보관, 무균·온도 추적, 무균 패키징 확대

트렌드 3. AI와 디지털 전환

- AI 실시간 제어 및 수율 최적화: 배양·정제 공정의 실시간 제어로 품질 편차를 줄이고, 장비 예측 보전으로 생산 중단 리스크 예방
- 실시간 공정 분석(PAT)·디지털 트윈 확대: PAT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정상태 모니터링하고, 원료 손실, 공정 편차, 에러 최소화
- 규제 데이터·품질 시스템의 디지털화: 데이터 완전성과 추적성 강화하고 QA/QC·변경관리·규제 문서 관리의 디지털화 확대

트렌드 4. 지속가능성

- Green Chemistry·연속 공정 확대: 친환경 합성법, 용매·원료 사용량 절감, 연속공정 등을 통한 환경부하 및 제조 효율 개선
- 공급망 ESG·Scope 3 데이터 관리 강화: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 데이터를 측정·관리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 지속가능 패키징·콜드체인 확대: 포장재 경량화·재활용성 개선과 친환경 소재,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콜드체인 패키징 개발 확대

관전 포인트: CPHI를 관통하는 4가지 주요 트렌드 (2/3)

트렌드 1.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공급처 다변화

대체 공급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

- **지정학적·입법적 압박에 따른 공급망 재편:** 생물보안법 가시화 및 미·중 갈등 장기화로 기존 중국 CDMO/API 의존도를 낮추려는 글로벌 빅파마의 'De-risking' 물량이 cGMP 역량을 검증받은 한국·인도·유럽 거점으로 수주 이전 검토

이중 소싱(Dual-Sourcing) 체계 표준화

- **단일 공급선 모델의 종말:** 단순 비용 절감 중심의 Sourcing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공급망 단절 발생 시 즉각 전환 가능한 Primary-Secondary 또는 multi-sourcing 구조 구축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 **규제 대응 고려한 사전 멀티소싱:** 핵심 원료·제조공정의 공급중단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대체 공급업체를 조기에 검토하고, 필요 시 복수 제조거점의 규제 등록·허가 전략을 병행
- **Co-Investment(공동 투자)형 장기 파트너십 확산:** 공급 안정성과 핵심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CDMO 간 장기 공급계약, Capacity Reservation, 전용 생산설비 투자 협력 등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트렌드 2. 차세대치료제 제조·위탁생산·패키징 혁신

신규 모달리티 CDMO 및 공정 고도화

- **고난도 모달리티별 전문 CDMO 경쟁:** ADC의 고활성 원료의약품(HPAPI) 접합, mRNA/LNP의 핵산·지질나노입자 제조, GLP-1의 펩타이드·제형·Fill-Finish 등 모달리티별 특화 제조 역량과 전용 설비를 갖춘 CDMO 수요 확대
- **개발부터 생산까지 One-stop-shop¹ 모델 확대:** 공정 개발(CDO) 단계부터 상업용 대량 생산(CMO)까지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통해 기술이전·스케일업 리스크를 낮추고 상업화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향 확대

제형·디바이스 및 친환경 패키징 혁신

- **차세대 치료제의 제형·안정성 고도화:** mRNA/LNP, ADC 등 민감한 신규 모달리티의 체내 전달률과 보관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제형 연구 및 동결건조/액상 공정 기술의 중요성 증대
- **자가투여 디바이스 및 DP(완제) 공정의 직결:** GLP-1 계열 약물 수요 폭증에 맞춰 오토인젝터·펜 주사기 등 스마트 약물 전달 디바이스 공급과 고도화된 DP 충전·포장(Fill-Finish) 솔루션의 일체화 가속
- **고위험 모달리티 전용 초저온 콜드체인 및 무균 멸균 패키징:** 극저온 보관이 필요한 CGT 및 온도 민감성 바이오의약품의 콜드체인·온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와 함께 무균 제조·충전·패키징 솔루션 수요 확대

1. 딜로이트, 2026 CDMO 산업 동향 (2026)

관전 포인트: CPHI를 관통하는 4가지 주요 트렌드 (3/3)

트렌드 3. AI와 디지털 전환

AI 기반 스마트 바이오 공정 및 수율 최적화

- **배양·정제 공정의 AI 실시간 제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배치(Batch) 간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AI 알고리즘이 배양 온도·pH·농도 등을 실시간 제어하여 최종 수율 극대화
- **예측 보전을 통한 공장 가동률 확보:** HPAPI/고가 바이오 장비의 고장 가능성을 AI가 감지하여, 생산 중단으로 인한 배치 폐기 리스크 사전 차단

실시간 공정 분석(PAT)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 **PAT 기반 실시간 품질관리 고도화:** 수주 소요되는 사후 품질 검사 대신, 생산 과정 중 PAT로 실시간 데이터 검증해 출하기간 단축 및 원가 절감
-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시뮬레이션 확대:** 공정조건·설비 운영을 사전 시뮬레이션하고, 스케일업·공정 변경에 따른 리스크와 원료·시간 손실 최소화

cGMP 대응 및 데이터 완전성 디지털화

- **FDA/EMA 실사 대비 데이터 완전성 확보:** 데이터 완전성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AI 기반으로 QC/QA 데이터의 인위적 수정·조작 차단
- **AI 기반 규제문서·변경관리 효율화:** DMF(Drug Master File)·규제 제출자료의 초안 작성, 문서 검색·요약 및 변경 이력 관리 등에 AI를 활용해 규제업무의 작성·검토 효율성과 추적성 향상

트렌드 4. 지속가능성

Green Chemistry 및 연속 공정(Continuous manufacturing)¹

- **Green Chemistry 기반 제조공정 혁신:**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용매·촉매·용매 회수 및 공정 효율화 기술 적용 확대
- **연속 공정을 통한 에너지·원가 절감:** 기존 배치 생산 대비 에너지·폐기물을 줄이는 연속 공정을 도입하여 ESG 규제 준수 및 제조 비용 절감

EU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및 공급망 환경 데이터 관리

- **EU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강화:** CSDDD·CSRD 등 EU 지속가능성 규제 변화에 대응해 환경·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 **Scope 3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원료·제조·물류 등 공급망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추적하고 LCI(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등 환경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사의 Scope 3 산정 및 ESG 요구에 대응

지속가능한 바이오·의약품 패키징

- **공정 자재 및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강화:** 1회용 바이오프로세싱 백 및 완제의약품 포장재의 재활용성·재사용성 개선,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 개발 확대
- **콜드체인 패키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사용 가능한 단열 시스템 및 운송 효율화 기술 등 저탄소 콜드체인 솔루션 확대

1. 딜로이트, 2026 CDMO 산업 동향 (2026)

CPHI Milan 2026 기조연설에서 읽는 트렌드

CPHI Milan 2026 기조연설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AI 운영 통합, 글로벌 공급망, 바이오 정책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혁신 리더들이 참여해, 단순 비용 절감에서 지속 가능한 제조·공급망 혁신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제약 산업의 미래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merging Health Ventures

Capitalising the Next Wave in Pharma

Tuesday, October 6, 10:22-10:52AM
Auditorium - Stella Polare



Nina Rawal
Founder

- 과학 혁신의 속도가 경제 모델 한계를 넘어서며 제약 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
- 약가 개편과 통상 압박 속 단기 성과와 장기 인프라 투자 간의 전략적 균형 필요
- 의약품의 국가 안보 자산화와 지정학적 파편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리더십 요구
-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분절된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모색

J.P. Morgan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in Pharmaceutical Innovation and Supply

Wednesday, October 7, 10:30-11:00 AM
Global Pharma Outlook Theatre | 7H81



Roy Wouters
Managing Director

- 무역 갈등과 AI, 산업 정책 등 지정학적 변화가 제약 산업을 빠르게 재편
- 의약품 혁신이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공급망 관리가 핵심 경영 전략으로 부상
- 제약 개발사 및 제조사, 투자자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 모색 중

Lachman Consultants

Building Operational Readiness for AI for Scale

Wednesday, October 7, 11:00-11:25 AM
Manufacturing 5.0 Theatre | 10K69



Frances Zipp
President & CEO

- AI 도입의 핵심 한계는 기술이 아닌 인력·조직 관리 등 운영상 문제에 있음
- 직무 재설계를 통한 AI 감독 역량 강화 및 조직원의 거부감과 불확실성 해소 필요
- 기존 품질 시스템 및 검증된 제조 공정을 유지하며 AI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제시

EuropaBio

Europe's Biotech Act II: Setting the Manufacturing Foundation

Wednesday, October 7, 11:00-11:30 AM
Next-Gen Bio Theatre | 12F49



Claire Skentelbery
Director General

- EU 바이오법 II 출범에 발맞춰 정책 선언을 넘어선 생산 현장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 필요
- 규제 단순화와 승인 절차 일원화를 통해 치료제 및 산업 바이오의 제조 스케일업 기반 마련
- 연구 성과와 실제 제조 역량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인프라·인력 투자 확대
- 미국 및 아시아 시장 대비 유럽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 제시

Contents

III. 주요 기업 참가 동향

-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참가기업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참가 기업 (1/2)

올해 CPHI에는 국내 주요 CDMO 및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글로벌 선도 CDMO 및 API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차세대 모달리티 생산 역량과 공급망 다변화 및 친환경 공정 기술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기업명	국가	부스	메인 전시 및 전략	주요 비즈니스 기회
글로벌 CDMO/ 대형사	Lonza	스위스	6F2	차세대 모달리티 전문 플랫폼 및 바이오의약품 End-to-End CDMO 역량 강조	대형 상업 생산 계약 확대 및 차세대 모달리티 생산능력 선제적 확충
	Catalent	미국	10C1	GLP-1 등 자가투여 주사제의 제형·Fill-Finish 및 오토인젝터 연계 역량 강조	GLP-1 등 주사제 시장 확대에 따른 상업용 Fill-Finish 및 통합 CDMO 수요 확보
	Thermo Fisher	미국	6A2	R&D, 임상, CDMO, 공급망 물류를 아우르는 원스톱 제약 전주기 솔루션	통합 공급망 제안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 소싱 일원화 유도
대체 거점 API	Evonik	독일	12A49	고난도 합성/HPAPI 공정 및 Green Chemistry 기술	EU ESG 규제 대응 솔루션 제시 및 고난도 API/HPAPI CDMO 수주 확대
	Siegfried	스위스	6A48	cGMP 기반의 대규모 원료의약품(API) 및 완제(DP) 결합 생산 역량	유럽 제조거점을 활용한 공급망 안정화 및 Nearshoring 수요 대응
	Syngene	인도	12A33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가격·품질 경쟁력 기반 API·소분자 CDMO 역량 강조	중국 의존도 완화 및 Secondary Supplier 확보 수요에 따른 인도 대체 공급망 기회 확대
디바이스 & 친환경 포장	Gerresheimer	독일	11A11	GLP-1 계열 약물 전용 자가투여 오토인젝터·펜 주사기 디바이스 및 충전 솔루션	자가투여 주사제 시장 확대에 따른 디바이스·충전·패키징 통합 공급 및 장기 파트너십 확대
	Aptar Pharma	미국	11A43	정밀 약물 전달 시스템 및 디지털 연동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제형 디바이스 기술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 DP 시장 확대
	Schott Pharma	독일	11F11	지속가능 패키징 및 민감한 바이오의약품용 고성능 Primary Packaging 기술 강조	Circular Packaging·탄소저감 및 고부가 Drug Containment 수요 확대

출처: 언론매체 종합, 딜로이트 인사이트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참가 기업 (2/2)

국내 기업들은 이번 CPHI Milan에서 CDMO 대형 수주부터 파이프라인 기술이전(L/O), 원료 공급망 진입 및 제조 설비 수출까지 글로벌 밸류체인 전반의 해외 판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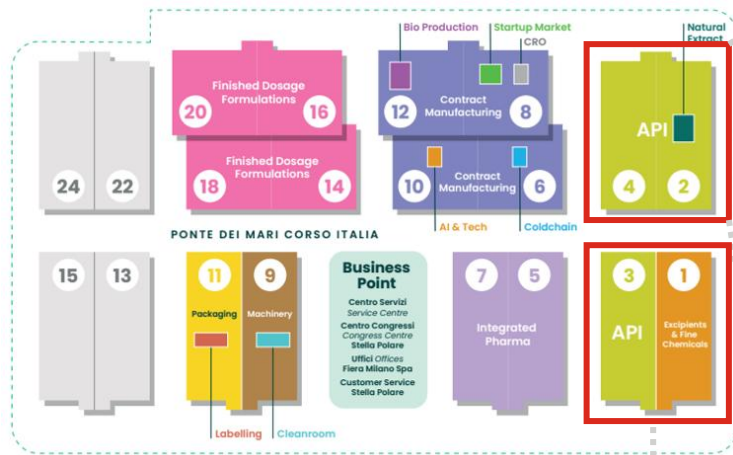
국내	기업명	국가	부스	메인 전시 및 전략	주요 비즈니스 기회
대형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	6F68	초대형 CAPA(5공장) 및 ADC 전용 생산시설, CDO-CMO 통합 End-to-End CDMO 역량 강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따른 빅파마 대형 수주 확대 및 북미 생산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 강화
	롯데바이오로직스		6F50	송도 바이오 메가플랜트 준공 및 미국 시러큐스 ADC 생산시설을 연계한 한-미 Dual-site CDMO 역량 강조	한-미 이중 거점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고객사 생산·공급망 다변화 대응 및 신규 CDMO 수주 확대
API·모달리티 CDMO	SK팜테코		10A25	미국·유럽 현지 cGMP 거점 기반의 CGT·바이럴벡터 및 소분자·HPAPI CDMO 역량 강조	미·유럽 현지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대형 CDMO 계약 확대
	ST팜		7D58	올리고핵산(RNA) API 대규모 전용 설비 및 기술이전 단축 역량	글로벌 올리고/RNA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Primary-Secondary CDMO 파트너 수요 확대
전문 API	경보제약		2F50	HPAPI·항암제 API 및 cGMP 무균 API 생산 인프라 강조	미·유럽 제약사 대상 중국산 원료 대체(De-risking) 수주 확대
완제 & 라이선싱	한미약품		18B75	GLP-1·복합제 등 완제의약품(FDF) 포트폴리오 및 제형·생산 역량 강조	글로벌 파트너링 및 해외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자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사업화 확대
	대웅제약		20A1	자체 개발 신약(펙수클루·엔블로 등) 완제품 및 주사제·디바이스 연계 약물전달 기술 강조	cGMP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라이선싱 및 해외 완제 사업화 파트너십 확대
	유한양행		2F59	혁신 신약·완제의약품 포트폴리오 및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해외 수출 역량 강조	해외 파트너사 발굴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 및 완제·API 수출 채널 확대
바이오시밀러·글로벌 상업화	셀트리온		6A18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상업화 역량을 기반으로 한 CMO/CDMO 사업 확대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따른 CMO/CDMO 수주 및 신약·바이오시밀러 파트너링 확대

출처: 언론매체 종합, 딜로이트 인사이트

주요 기업 부스 위치 | Hall 1-4 | API, Excipients & Fine Chemicals, and Natural Extract

CPHI의 모태이자 핵심인 원료의약품(API)을 중심으로, 부형제, 정밀화학, 천연 추출물 등 글로벌 제약 원료 생태계의 핵심을 다루는 전시관입니다. Hall2에 국내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KOTRA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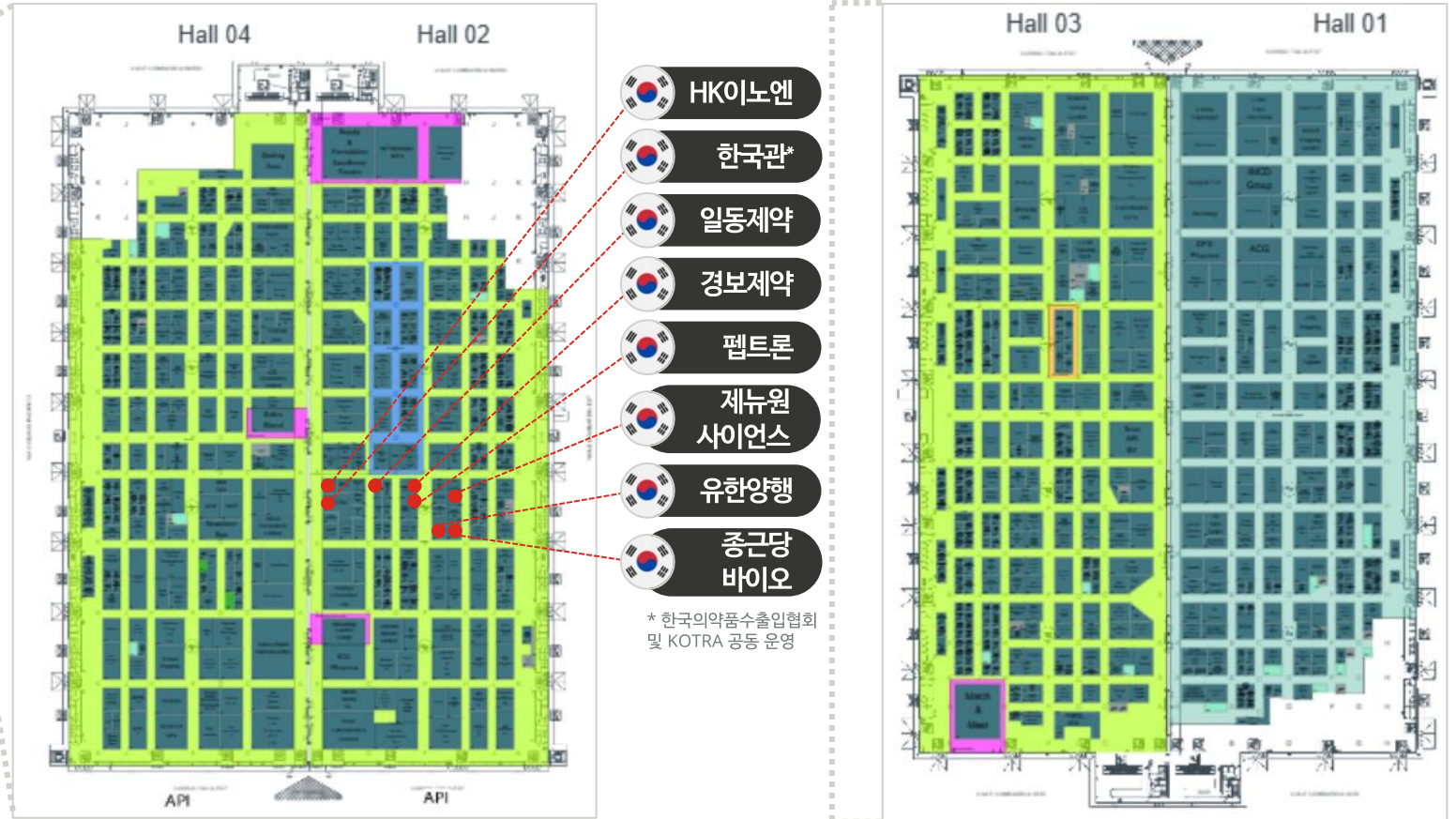
HALL 1-4



부스 위치

- HK이노엔: 2A52
- 일동제약: 2C55
- 경보제약: 2F50
- 펙트론: 2F52
- 제뉴원사이언스: 2H56
- 유한양행: 2F59
- 종근당바이오: 2H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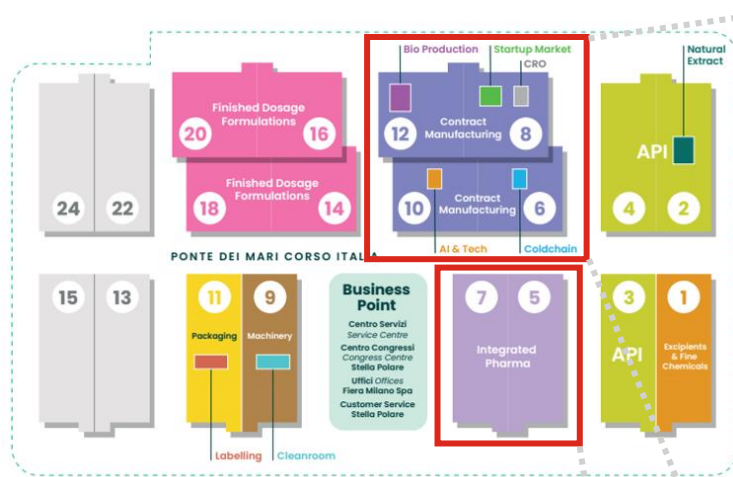
전시 업체



주요 기업 부스 위치 | Hall 5-8-10-12 | Contract Manufacturing, Integrated Pharma, CRO, Bio Production, AI, Coldchain

위탁개발생산(CDMO)과 임상(CRO)부터 AI, 콜드체인, 첨단 바이오 생산까지, 의약품 개발·제조 전 과정과 솔루션을 아우르는 핵심 전시 구역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onza, Catalent 등 국내외 주요 CDMO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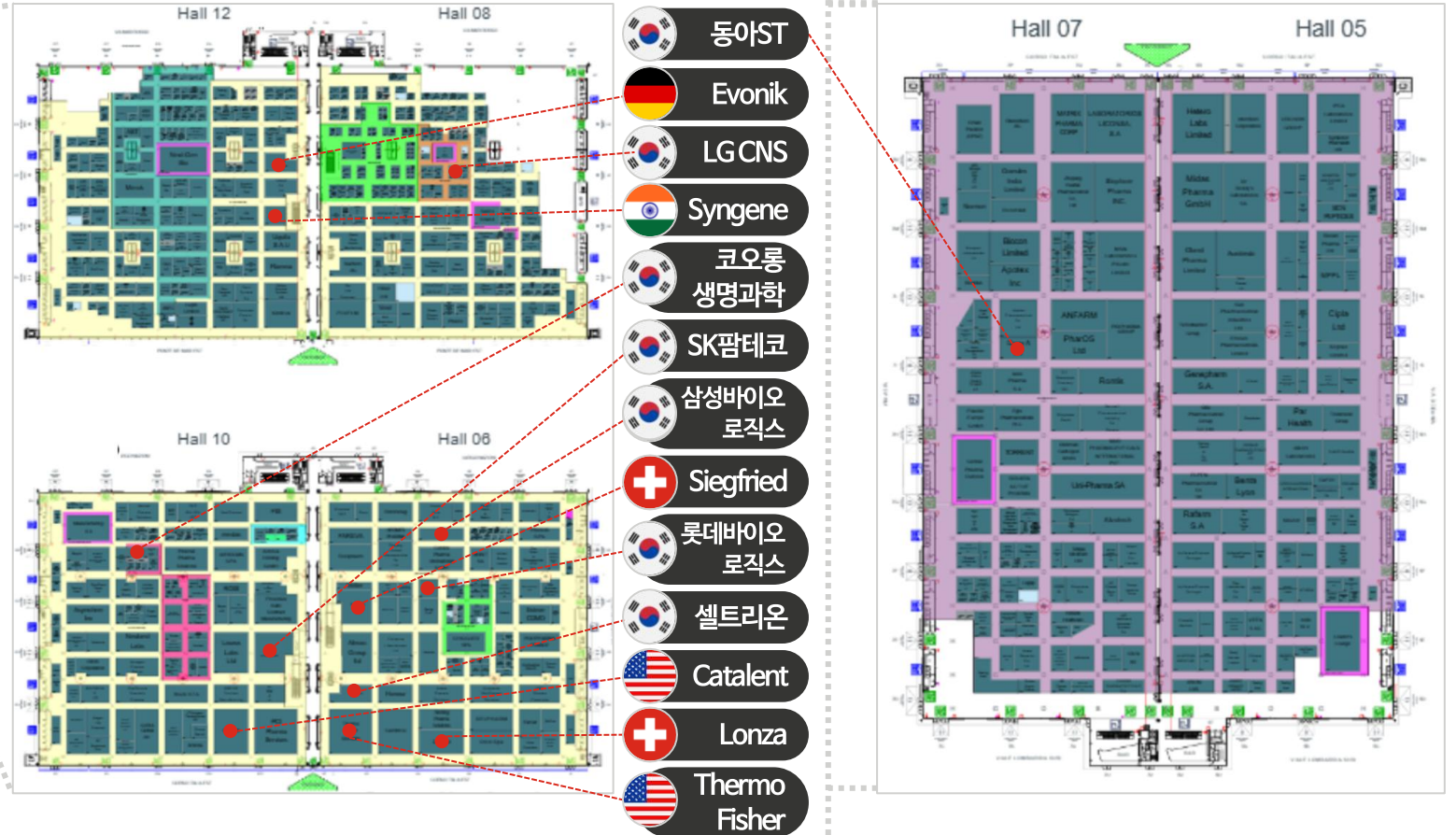
Hall 5-8-10-12



부스 위치

- 동아ST: 7D58
- Evonik: 12A49
- LGCNS: 8J45
- Syngene: 12A33
- 코오롱생명과학: 10H61
- SK팜테코: 10A25
- 삼성바이오로직스: 6F68
- Siegfried: 6A48
- 롯데바이오로직스: 6F50
- 셀트리온: 6A18
- Catalent: 10C1
- Lonza: 6F2
- Thermo Fisher: 6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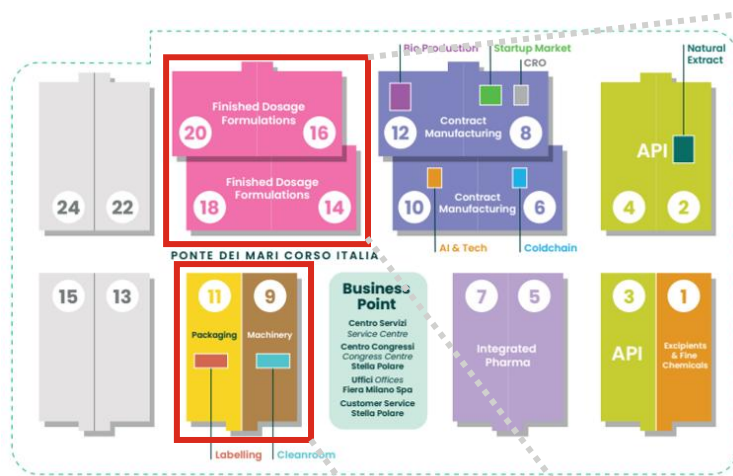
전시 업체



주요 기업 부스 위치 | Hall 9·11·14·16·18·20 | Finished Dosage Formulation, Machinery, Packaging, Labelling, Contamination Control

완제의약품(FDF) 제형화부터 제조 설비, 패키징 및 오염 관리까지, 의약품의 상업화 양산 및 최종 완제품 생산을 책임지는 물리적 제조 기술 전시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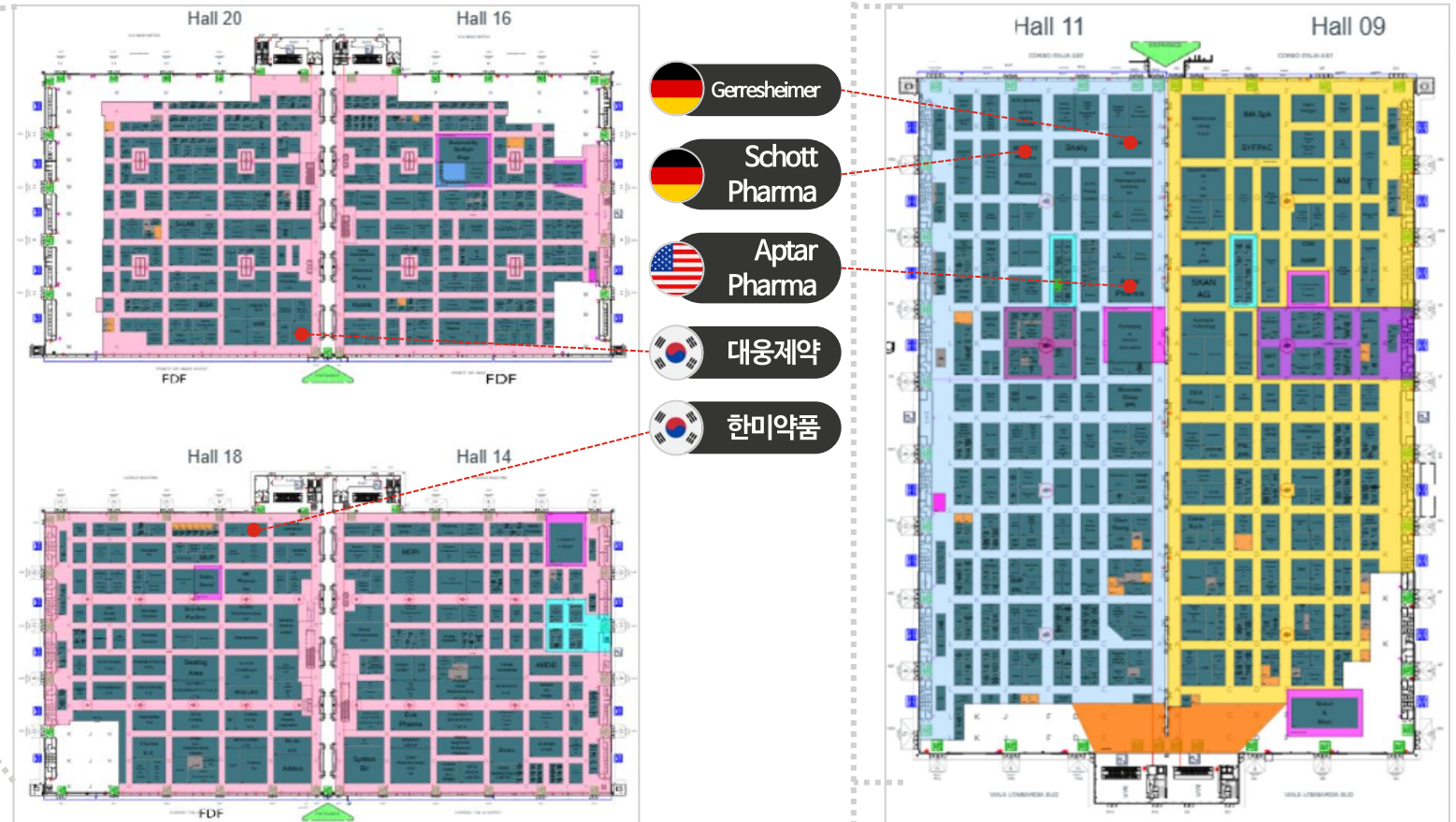
Hall 9·11·14·16·18·20



부스 위치

- Gerresheimer: 11A11
- Schott Pharma: 11F11
- Aptar Pharma: 11A43
- 대웅제약: 20A1
- 한미약품: 18B75

전시 업체



[부록] 딜로이트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성

딜로이트 인사이트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자료를 발간해 왔으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CDMO 성장 전략



2026 CDMO 산업 동향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의 핵심, CDMO의 리스크와 완화 전략

주요 CDMO 기업의 사업 모델부터 리스크 지형도, 디지털 혁신 트렌드, 전략 등 주요 산업 이슈 분석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시

규제 대응 전략



약가 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대응 전략

제약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제네릭에서 혁신 경쟁으로

국내 약가 제도 개편안이 제네릭 약가 인하와 신약·필수의약품 보상 강화를 골자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면서, 기업은 비용 효율화와 신약 R&D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으로 대응 필요

수익성 개선 전략



글로벌 제약산업 R&D 수익성의 양극화

GLP-1 편중 동향 분석과 수익성 악화 극복방안

글로벌 제약산업 R&D 수익률의 최근 개선세는 신약 개발 비용 급증 속에서 비만치료제 등 소수 메가 블록버스터에 편중되어 나타난 착시 효과로, 기업은 장기적 수익성을 위해 전략적 자본 투입, 시장 구도 반영, 운영 전반의 시내재화 추진 필요

M&A 전략



재도약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M&A 시장

2025년 동향과 2026년 전망

2025년 생명과학 분야 M&A 시장이 상반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제약 및 진단 부문의 검증된 자산을 중심으로 반등하며, 2026년에도 정밀한 타겟 인수와 전략적 사업 매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 앱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AI 시대의 전략과 리스크, 산업별 핵심 이슈를 다룬 **분석 리포트**
-  소비심리지수·자동차 구매의향 등 실물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Deloitte Index**
-  딜로이트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글로벌 행사의 현장을 담은 **영상 콘텐츠**
-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실행 인사이트를 담은 **고객 성공 사례**

카카오 채널

앱

 카카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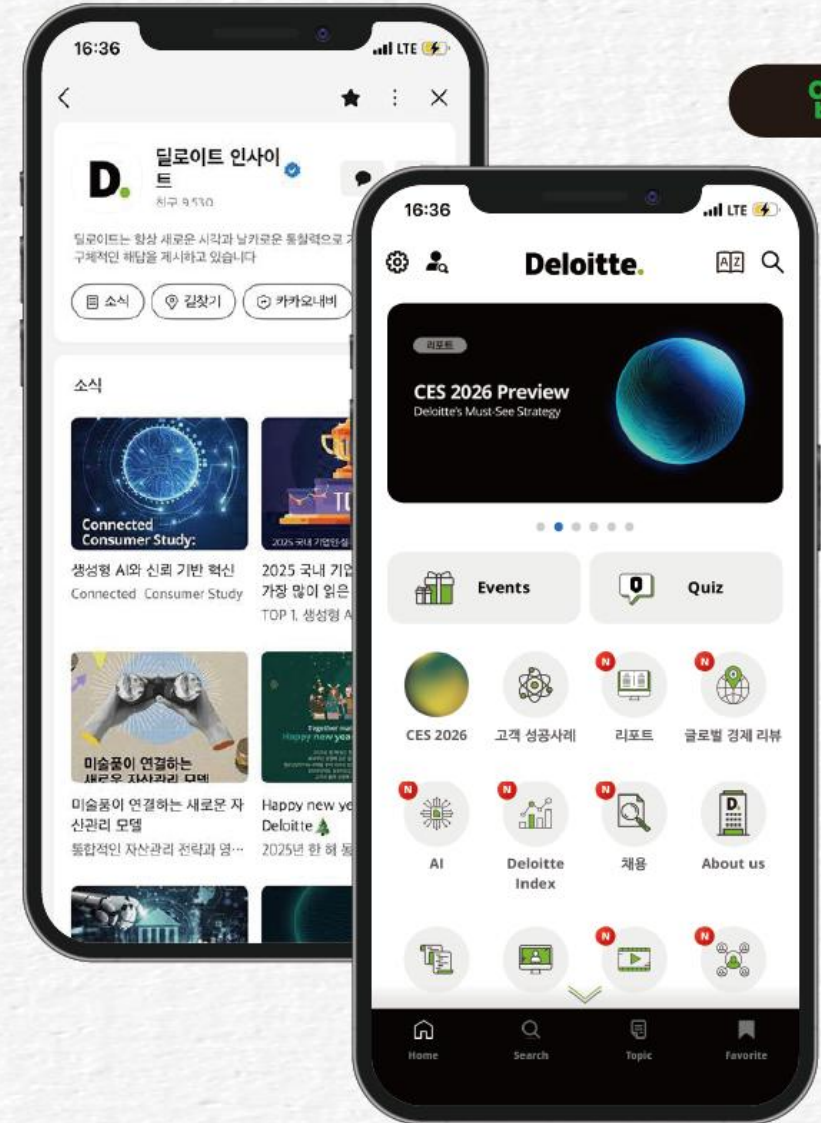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대표
권지원 Partner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부대표
서정욱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Manager
eukwan@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 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